

제157호(2017. 11. 30.)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목 차
contents

1. 농가경제 동향	1
2. 농가유형별 소득 변화	7
3.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변동성 분석	16
4. 시사점	20

감 수	엄진영 부연구위원	061-820-2255	jeom@krei.re.kr
내 용 문 의	우병준 연구위원	061-820-2378	bjwoo@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1.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062-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2016년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과거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2016년에 전년보다 0.05% 감소한 37,197천 원
 - 2016년 농가소득은 과거 5년 평균보다 10.8%, 과거 3년 평균보다 4.6% 높은 수준
- 최근 농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지속적 증가 영향
 - 2008~2016년 기간 동안 농업소득은 연평균 0.5% 증가에 그친 반면, 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 감소 추세 심화
 - 농가소득(2016년)에서 비중은 농업소득 27.1%, 농외소득 41.0%, 이전소득 23.6%
- 최근 농가소득 증가로 도농 간 소득격차 다소 완화,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 증가
 - 2011~2012년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60% 미만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63% 수준으로 상승(2016년 63.5%)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자산가치의 큰 폭 상승과 농가 부채규모의 안정적 유지에 힘입어 2008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화
- 표준영농규모로 농가 유형화한 결과, 가장 비중이 높은 농가유형은 경영주 연령 65~70세이면서 동시에 표준영농규모 0.5~1ha인 농가로 전체에서 5.27%의 비중 차지
 - 2008~2016년 기간 65세 미만 농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65세 이상이면서 표준영농규모 0.5ha 미만인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전체 유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영세고령농가 증가 추세 심각
- 지니계수 측정 결과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완화
 - 농가소득 불평등도 요인분해 결과, 농외소득의 높은 불평등도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큼
 -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농가(영세고령농가)와 대규모 전업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영세고령농가는 매우 제한된 소득원, 대규모 전업농가는 농축산물 가격변동성 때문에 높은 소득 불안정성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

01 | 농가경제 동향

2016년 농가소득은 지속적 성장 이후 전년보다 감소

1.1. 농가소득 일반 동향

□ 2016년 농가소득 전년보다 소폭 감소

- 전국 표본농가(2,600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가소득은 평균 37,197천 원으로 전년 37,215천 원보다 0.05% 감소한 거의 동일한 상태임.
- 농가경제통계의 표본농가는 가구원 2인 이상 2,500개 농가와 1인 단독 100개 농가로 구성되며, 1,000㎡(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조사시점 평가액 120만 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다만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은 조사에서 제외됨.
- 농가소득은 2010년을 전후하여 증감을 거듭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구체적으로는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2014년 1.2%, 2015년 6.5%으로 연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2016년 농가소득은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과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6년 농가소득은 과거 5개년 평균(2011~2015년 33,574천 원)보다 10.8%, 과거 3개년 평균(2013~2015년 35,563천 원)보다는 4.6% 높은 수준임.

〈표 1〉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농가소득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0.0	2.5
농업소득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10.6	0.5
농외소득	11,353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14,939	15,252	2.1	3.8
이전소득	5,289	5,481	5,610	5,453	5,614	5,844	6,819	7,906	8,783	11.1	6.5
비경상소득	4,227	3,507	3,467	2,993	2,705	2,940	3,029	3,114	3,095	-0.6	-3.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 성장은 정체 상태

- 최근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은 그러지 못했음. 농업총수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2.4%씩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가 연평균 3.4% 상승하여 농업소득 증가 폭은 연평균 0.5%에 불과하였음.¹⁾
 - 2016년 농업소득은 농가당 평균 10,06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음. 2016년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31,279천 원이며, 이 중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6.2%, 12.4%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농업소득의 정체로 인해 농업총수입 중 농업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농업소득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37.4%에서 2016년 32.2%로 하락하였음.
- 반면 2016년 농외소득(15,252천 원)과 이전소득(8,783천 원)은 전년 대비 각각 2.1%, 11.1% 증가하였음. 비경상소득²⁾은 3,09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함. 농가의 농외소득은 2008년 이후 연평균 3.8%씩 증가하였음(겸업소득 3.6%, 사업외소득 3.8%). 2016년 농가당 평균 농외소득은 15,25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 2016년 농외소득 가운데 겸업소득은 3,85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임업 및 어업, 농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임.
 - 급료수입(농외임금, 농업임금) 등에 의한 2016년 사업외소득은 11,39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음.

〈표 2〉 최근 5년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동향

단위: 천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소득	9,127	-	10,035	-	10,303	-	11,257	-	10,068	-
농업총수입	27,589	100.0	30,648	100.0	32,179	100.0	33,654	100.0	31,279	100.0
농작물수입	21,942	79.5	23,155	75.6	22,942	71.3	22,760	67.6	21,357	68.3
축산수입	5,099	18.5	7,397	24.1	9,071	28.2	10,530	31.3	9,222	29.5
농업잡수입	548	2.0	96	0.3	165	0.5	365	1.1	699	2.2
농업경영비	18,461	-	20,613	-	21,875	-	22,398	-	21,211	-
농외소득	13,585	100.0	15,705	100.0	14,799	100.0	14,939	100.0	15,252	100.0
겸업소득	3,966	29.2	4,182	26.6	3,751	25.3	3,733	25.0	3,855	25.3
사업외소득	9,619	70.8	11,523	73.4	11,048	74.7	11,206	75.0	11,397	74.7

주: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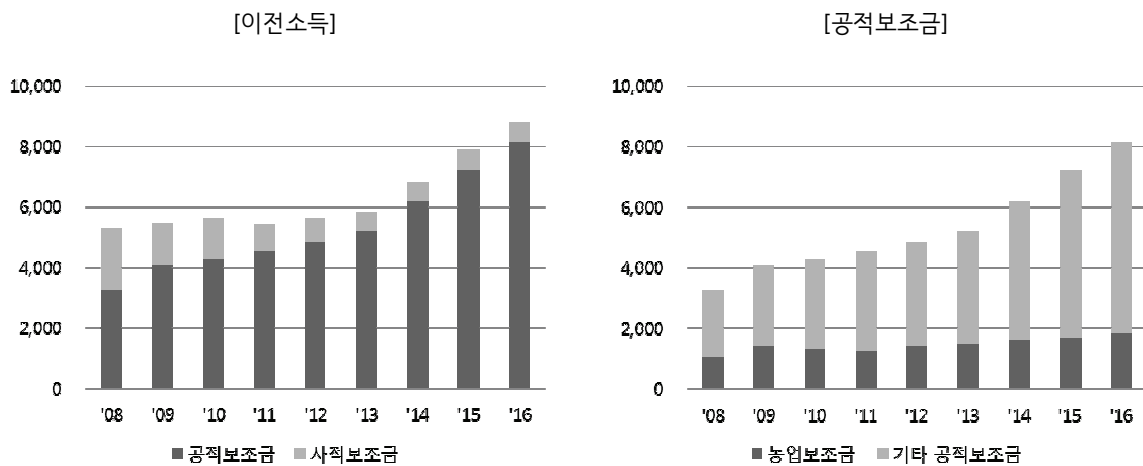
1)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08년 자료부터 분석에 포함함.

2)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 (예) 경조수입,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등("2016년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재인용, 통계청).

- 농가 이전소득³⁾은 기초연금 등 공적보조금 증가로 2008년 5,289천 원에서 2016년 8,783천 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하였음. 2016년의 경우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는데, 특히 공적보조금이 전년보다 12.5% 증가하였음<그림 1>.
- 공적보조금은 2008~2016년 동안 연평균 12.2%씩 증가하였음. 공적보조금 가운데 농업보조금(연평균 7.2%)보다 연금과 사회보장 수혜에 해당하는 기타 공적보조금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4.1%)하였음.
- 사적보조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전소득에서 40~45%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1〉 이전소득 추이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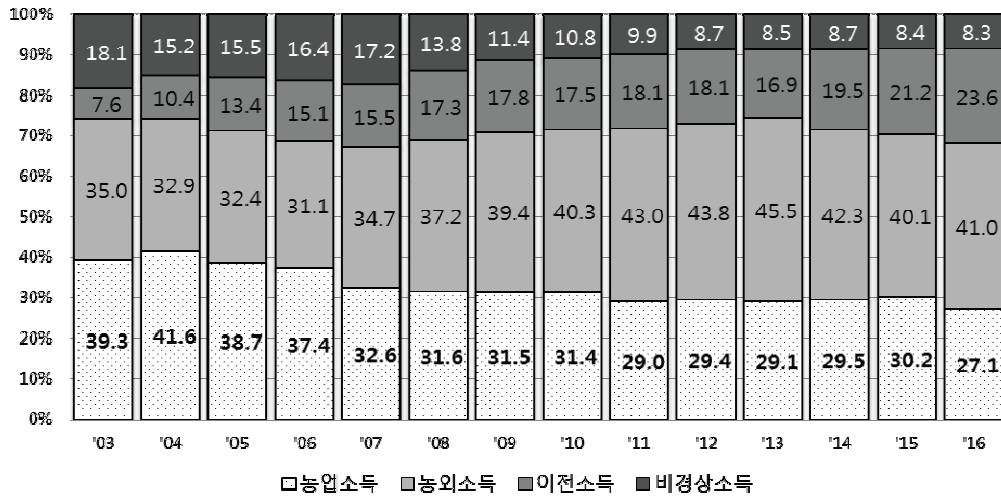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 2016년 기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은 농업소득이 27.1%, 농외소득이 41.0%, 이전소득이 23.6%임.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는 현상은 농가의 가계지출 증가 정도를 농업소득 성장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농가의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강혜정 2006).
- 농업소득은 2008~2016년간 연평균 0.5% 증가에 그친 반면, 농가의 가계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1.7% 증가하였음<그림 3>.

3)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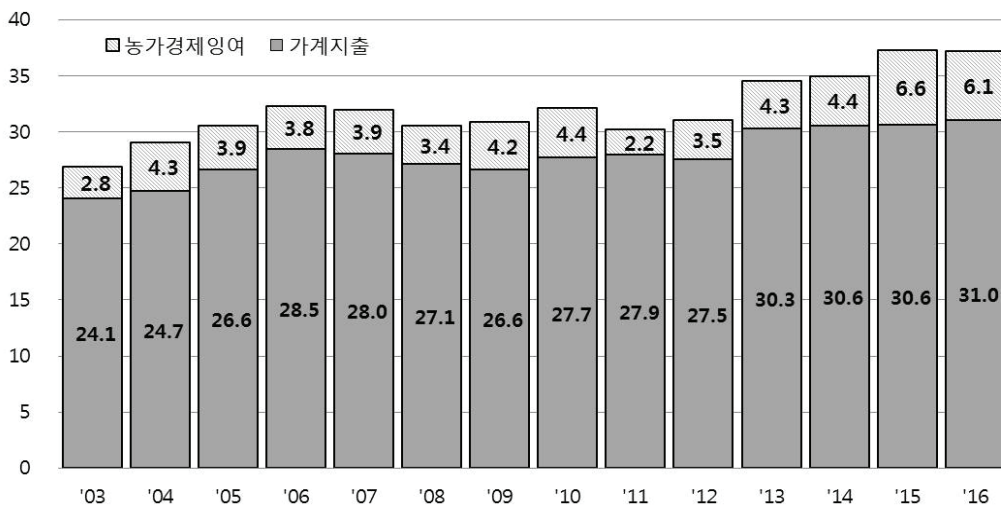
〈그림 2〉 농가소득 구성항목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그림 3〉 농가의 가계지출 및 농가경제잉여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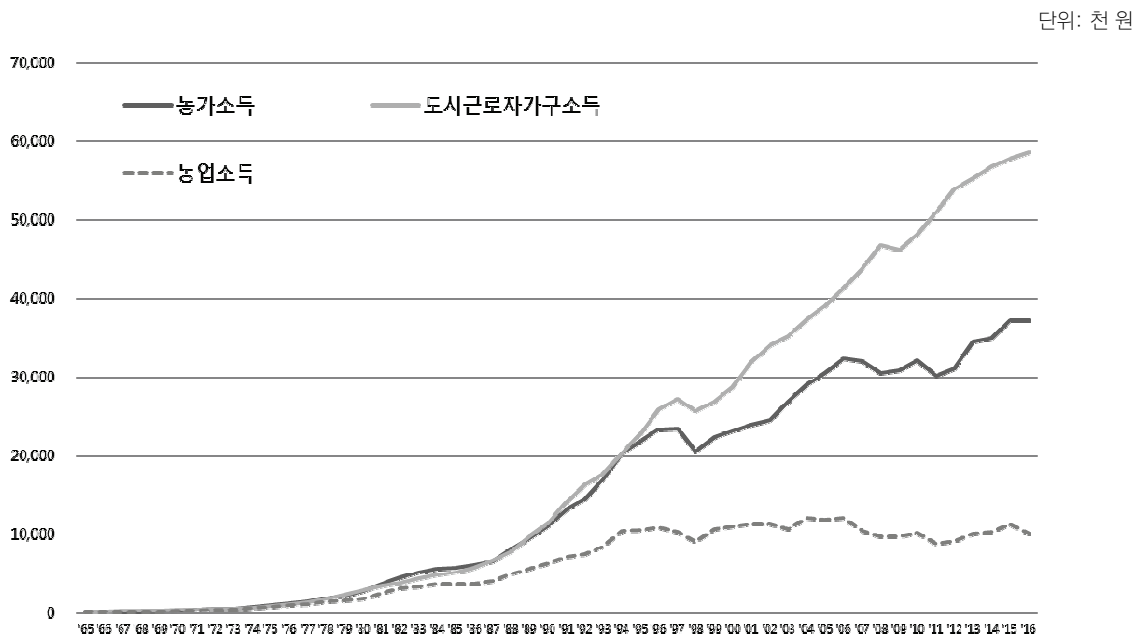
도농 간 소득 격차 여전히 존재, 농가의 재무 안정성 증가 추세

1.2.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교

□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1990년대 초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가소득의 상승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농업소득이 1994년 이후 10,000천 원 수준에서 정체 지속되어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업 소득의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그림 4〉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www.kosis.kr).

- 최근 농가소득이 증가하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는 다소 완화되었음.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1~2012년 60% 미만까지 감소했으나, 2013년 이후 63.0% 수준으로 상승하였음〈표 3〉.
- 2016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2016년 소득(58,613천원) 대비 63.5%로, 농업소득 감소로 2015년(64.4%)에 비해 0.9%p 감소하였음.

〈표 3〉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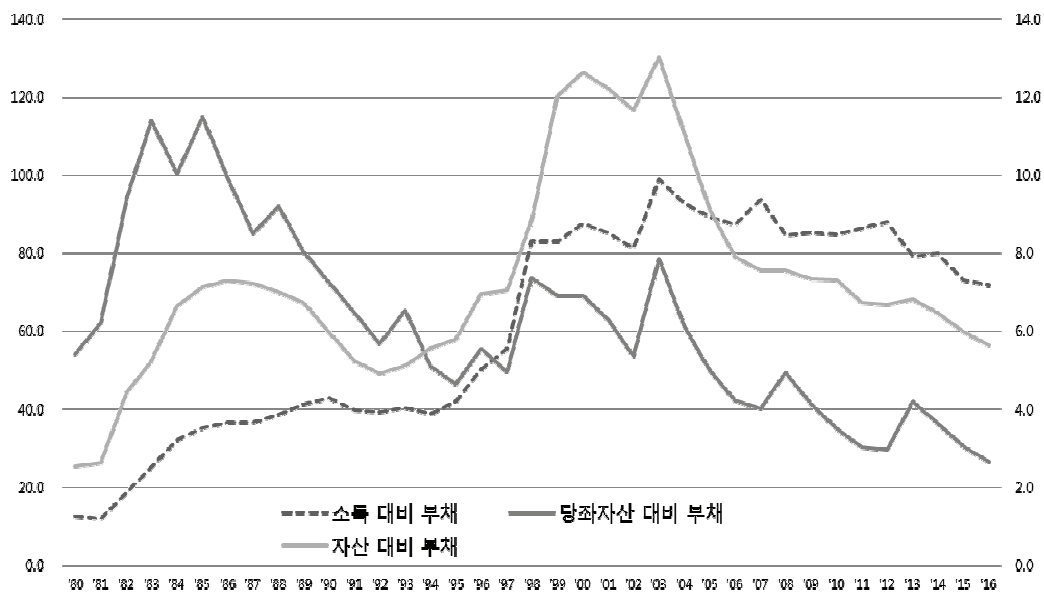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76.4	77.6	78.2	78.2	72.9	65.2	66.6	66.8	59.1	57.6	62.5	61.5	64.4	63.5
농업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30.1	32.3	30.3	29.3	23.7	20.6	21.0	1.0	17.2	16.9	8.2	18.1	19.5	1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 증가

- 농가부채는 2007년 29,946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화되어 재무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음. 자산(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부채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이는 농가소득 정체기에도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농가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02 | 농가유형별 소득 변화

경영주 연령 및 규모에 따라 농가소득 격차 발생, 농가 유형별 정책 접근 필요

2.1. 농가 특성별 변화 추이

□ 특정 연령대, 규모 및 영농유형별로 농가소득 증가율 차이 발생

- <표 4>와 같이 구체적으로 농가 특성별 농가소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규모, 연령, 영농형태별로 농가를 세분함.
- 규모별 농가소득의 경우 '1.5~2.0ha 미만' 규모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0.3%로 가장 낮았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의 경우에도 '1.5~2.0ha 미만'의 농가는 다른 규모와 달리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1.7%)을 기록했음.
 - 2016년의 규모별 농가소득의 경우 1.5ha 미만 농가들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그 이상 규모 농가들은 소득이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2008~2016년 기간 동안 39세 미만 경영주의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 경영주의 농가소득 증가폭이 높았음.
- 2016년 기준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소득은 30~40대 평균 농가소득이 49,641천 원으로 전년 (52,586천 원) 대비 5.6%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의 농가소득은 증가하였음. 이전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은 70세 이상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이 2008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하였으나, 여타 연령대에 비해 증가 수준은 가장 낮았음.
- 2008~2016년 기간 동안 영농형태별로는 특작을 제외한 모든 영농형태의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축산이 연평균 6.6%씩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규모 역시 여타 영농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수준임. 특용작물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화훼와 논벼농가 역시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6년 논벼농가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모두 감소하면서 2015년 대비 13.6% 감소하였음.

〈표 4〉 유형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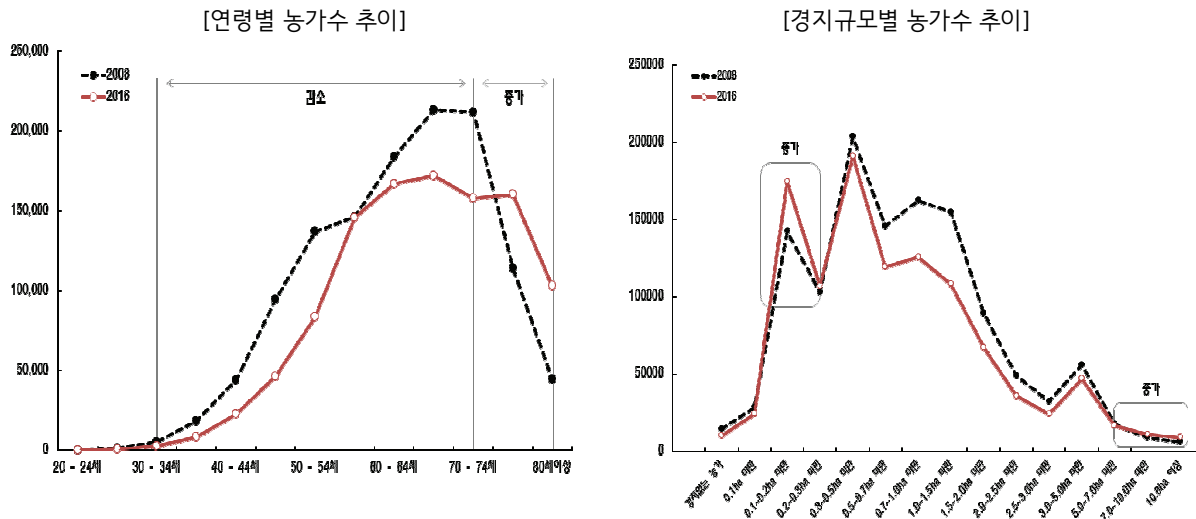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증감률	'08~'16 연평균 증감률
구 모 별	전체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0.0	2.5
	0.5ha 미만	28,453	28,332	28,194	28,172	28,106	32,220	31,041	32,860	34,434	4.8	2.4
	0.5~1.0ha 미만	25,283	26,493	30,691	24,383	26,143	27,992	32,359	32,420	33,531	3.4	3.6
	1.0~1.5ha 미만	26,647	27,898	28,864	29,965	28,838	34,830	35,612	34,313	35,459	3.3	3.6
	1.5~2.0ha 미만	30,524	30,321	28,362	29,124	30,327	37,568	33,166	34,859	31,152	-10.6	0.3
	2.0~3.0ha 미만	35,054	33,545	31,632	31,917	32,011	36,987	34,687	42,614	41,227	-3.3	2.0
	3.0~5.0ha 미만	35,924	36,664	41,946	36,999	41,080	41,627	43,103	45,516	46,467	2.1	3.3
	5.0~7.0ha 미만	44,915	46,291	39,196	36,078	44,374	56,577	49,697	62,117	53,350	-14.1	2.2
	7.0~10.0ha 미만	63,548	51,884	64,054	61,918	60,514	45,006	60,881	76,910	72,188	-6.1	1.6
	10.0ha 이상	48,032	68,693	77,355	68,412	54,436	53,129	62,826	82,835	80,547	-2.8	6.7
연 령 별	30세 미만	-	-	-	-	-	-	-	-	-	-	-
	39세 이하	46,618	33,713	48,881	37,011	37,174	44,870	57,594	95,405	77,552	-18.7	6.6
	40~49세	41,050	44,754	50,202	45,646	47,932	43,135	45,083	50,043	48,170	-3.7	2.0
	50~59세	38,756	43,936	46,946	44,213	46,528	54,745	57,816	60,703	63,151	4.0	6.3
	60~69세	31,368	31,507	32,619	31,803	33,603	34,223	35,533	40,133	42,637	6.2	3.9
	70세 이상	21,224	19,953	20,888	20,608	21,986	22,088	22,616	24,368	24,476	0.4	1.8
영 농 태 양 별	논벼	23,318	21,824	20,628	19,707	19,609	23,325	22,500	25,588	22,117	-13.6	-0.7
	과수	30,419	29,469	34,991	29,505	32,261	34,352	34,662	34,039	34,434	1.2	1.6
	채소	24,164	25,813	28,625	26,386	26,922	29,125	25,718	27,001	29,280	8.4	2.4
	특작	41,633	37,343	39,127	21,280	24,064	21,081	19,265	15,281	22,049	44.3	-7.6
	화훼	35,874	38,021	27,408	24,759	32,231	21,878	27,983	26,981	32,025	18.7	-1.4
	일반 발작물	20,022	14,999	27,252	18,429	16,374	20,122	23,528	23,576	26,882	14.0	3.8
	축산	46,398	48,762	42,179	47,939	46,660	52,721	72,338	79,649	77,434	-2.8	6.6
	기타	28,768	25,743	40,772	47,808	52,046	46,113	57,136	72,133	46,874	-35.0	6.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 경영주 연령과 규모에 따라 농가수 변화 발생

- 2016년도 연령별 농가 수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이상~74세 미만의 경우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75세 이상의 고령 농가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청장년 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됨.
- 2016년도의 경지 규모별 농가수의 경우 2008년 대비 0.3ha 이상~7ha 미만의 농가수는 감소하였으나, 0.2ha 미만과 7ha 이상 농가가 증가하면서 영세농과 대농이 증가함.

〈그림 6〉 연령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추이(2008/201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 농가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8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매년 약 1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지 규모별 농가수의 경우도 10ha 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들이 연평균 약 4.6%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표 5〉 연령 및 경지규모별 농가수 연평균 증감 변화(2008~2016년)

단위: 가구, %

구분	연령별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20~24세	25	35	4.3
25~29세	1,116	620	-7.1
30~34세	4,949	2,591	-7.8
35~39세	18,190	8,050	-9.7
40~44세	43,752	22,374	-8.0
45~49세	94,391	46,069	-8.6
50~54세	137,013	83,436	-6.0
55~59세	145,915	145,631	-0.02
60~64세	183,835	166,798	-1.2
65~69세	213,133	171,853	-2.7
70~74세	211,640	157,771	-3.6
75~79세	113,699	160,141	4.4
80세 이상	44,390	102,905	11.1

구분	경지규모별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경지 없는 농가	14,325	9,823	-4.6
0.1ha 미만	28,113	23,912	-2.0
0.1~0.2ha 미만	142,203	174,495	2.6
0.2~0.3ha 미만	103,014	106,795	0.5
0.3~0.5ha 미만	203,408	190,885	-0.8
0.5~0.7ha 미만	145,635	119,140	-2.5
0.7~1.0ha 미만	162,216	125,452	-3.2
1.0~1.5ha 미만	154,672	108,153	-4.4
1.5~2.0ha 미만	89,176	67,048	-3.5
2.0~2.5ha 미만	48,745	35,829	-3.8
2.5~3.0ha 미만	32,218	23,975	-3.6
3.0~5.0ha 미만	55,904	46,899	-2.2
5.0~7.0ha 미만	17,427	16,359	-0.8
7.0~10.0ha 미만	8,895	10,746	2.4
10.0ha 이상	6,098	8,761	4.6

□ 농가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유형화 및 유형별 맞춤형 정책 검토 필요성 대두

- 농업 구조가 변화하고 농가별 특성이 다양화되면서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가 전체에 대한 평균적 접근보다는 농가유형화 이후 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함(김수석 외 2006; 김미복 외 2016).
 - 이를 위해 경영주의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농가유형화를 실시함.
- 표준영농규모는 경지면적을 제외한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 대식물, 대동물 등)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후 경지면적과 합산해 농가의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측정함(최양부 1983).
 - 농가의 고정자산별 소유구분에 따라 임대를 제외한 소유와 임차자산의 평가액 합계를 적용하여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실제 경영규모를 판단하고, 그 외 농가의 자산적인 요소는 경영규모 합산에서 제외함.
- 이와 같이 연령과 표준영농규모가 동시에 고려된 종합적인 농가 유형화를 통해 농가 구조 변화 및 농가 유형별 소득의 증감 변화를 살펴봄.

표준영농규모

$$SSF = L_A + \frac{F_V}{L_P}$$

L_A : 개별농가의 경지면적
 L_P : 전국평균지가
 F_V : 고정자산 평가액

2016년도 기준 농가 평균 연령은 약 68세, 표준영농규모는 약 1.9ha

2.2. 농가 유형별 분포

□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하여 농가 유형화

-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70세 미만이면서 동시에 표준영농규모 0.5ha 이상~1.0ha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큼.
 - 표준영농규모 및 연령의 해당 구간 비중은 연령 기준 19.2%, 표준영농규모 기준 27.58%임.
- 누적합계 기준으로도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은 각각 43.88%, 52.67%에 달해 해당 구간에 속한 농가들이 평균적인 농가에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의 경우 해당 구간이 전체 연령 범위 중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나, 표준영농규모는 전체 표준영농규모 구간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위수준 범위에 집중되어 있음.

〈표 6〉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에 따른 농가 분포(2016년)

단위: %

구분	40세 미만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합계	합계(누적)
0.5ha 미만	0.04	0.15	0.73	0.45	1.05	2.07	2.87	2.49	3.77	1.83	0.73	0.11	16.30	-
0.5~1.0	0.06	0.16	0.73	1.12	2.19	4.45	5.27	4.08	4.74	4.06	0.72	0	27.58	43.88
1.0~1.5	0	0.09	0.42	0.88	1.26	2.55	2.47	3.03	3.53	1.96	0.12	0.05	16.36	60.24
1.5~2.0	0	0.2	0.11	0.92	1.31	1.59	2.67	2.76	2.63	0.45	0.13	0	12.77	73.01
2.0~2.5	0	0.19	0.02	0.43	0.67	0.81	1.65	1.26	1.26	0.47	0.17	0	6.94	79.95
2.5~3.0	0.03	0	0.13	0.28	0.3	0.98	1.36	1.38	1.03	0.3	0	0	5.8	85.75
3.0~3.5	0	0.04	0.2	0.17	0.41	0.61	0.35	0.56	0.26	0	0.03	0.07	2.69	88.44
3.5~4.0	0	0	0.04	0.03	0.5	0.28	0.37	0.56	0.13	0.29	0.05	0	2.25	90.69
4.0~5.0	0	0.19	0.16	0.03	0.41	0.7	0.76	0.3	0.48	0	0.03	0	3.04	93.73
5.0~15	0.05	0.09	0.24	0.31	0.88	1.5	1.38	0.8	0.37	0.25	0.02	0	5.88	99.61
15~25	0	0	0	0.01	0.16	0.05	0.04	0.05	0	0.04	0	0	0.35	99.96
25~35	0	0	0.01	0.01	0	0.01	0	0	0	0	0	0	0.03	100
합계	0.19	1.11	2.77	4.64	9.15	15.61	19.2	17.26	18.2	9.65	1.98	0.23	100	-
합계(누적)	-	1.3	4.07	8.71	17.86	33.47	52.67	69.93	88.13	97.78	99.76	100	-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 위와 같이 각각 12개 구간(총 144개)으로 세분화된 유형으로 분석할 경우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구간에 따라서는 해당 농가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3구간(총 9개)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

〈표 7〉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분석 구간

연령	표준영농규모
41세 미만	0.5ha 미만
41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2.0ha 미만
65세 이상	2.0ha 이상

주: 황익식 외(2003), 김미복 외(2016)의 연구에서는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표준영농규모 2ha와 함께 각각 60세, 65세를 기준으로 유형화.

□ 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로 매년 증가, 65세 미만의 청장년 농가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

- 2016년 기준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66.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이후 65세 이상의 비중이 연평균 2.8% 증가함.
- 65세 이상 농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 경영주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40세 이하 농가의 비중은 전체 농가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연도별 경영주 평균 연령 및 중간 연령도 각각 연평균 0.8%, 0.9%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 추이

단위: %, 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8/'16 연평균 증감률
41세 미만	1.5	0.9	0.8	0.7	0.6	0.8	0.7	0.7	0.2	-22.9
41세 이상 65세 미만	45.1	43.2	41.6	38.3	35.1	43.2	39.1	36.1	33.3	-3.3
65세 이상	53.3	55.9	57.6	61	64.4	56.1	60.2	63.2	66.5	2.8
평균(세)	63.9	64.7	65.4	66.2	67.1	65.7	66.7	67.4	68.3	0.8
중간값(세)	64	65	66	67	68	66	67	68	69	0.9

주: 중간값의 경우 가중치를 미적용한 통계치임.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 표준영농규모 기준 0.5ha 미만 농가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표준영농규모 기준 0.5ha 이상~2.0ha인 농가의 비중은 매년 50% 이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규모임. 다만 0.5ha 미만인 소농이 차지하는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가장 크고, 2ha 이상 대농의 비중은 연평균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가 농가규모의 영세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9〉 표준영농규모별 농가 비중 추이

단위: %, ha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0.5ha 미만	10.6	10.7	11.5	10.8	13.1	14.3	14.2	14.9	16.3	5.5
0.5~2.0	55.9	55.8	55.7	54.3	55.2	55.6	55.3	56.2	56.7	0.2
2.0ha 이상	33.5	33.5	32.8	34.8	31.6	30.1	30.6	28.9	27.0	-2.7
평균(ha)	2	2.1	2	2	2.1	2	2.1	2	1.9	-0.6
중간값(ha)	2.1	2.1	2.1	2.1	2.3	2.1	2.2	2.1	2.1	0.0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 40세 이하 농가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감소하는 추세

- 모든 유형에서 65세 이상 농가 비중은 증가하며, 0.5ha 이상~2.0ha 미만 구간이 약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65세 이상+0.5ha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가장 커서 고령영세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표 10〉 유형별 농가 수 및 비중

단위: 개, %

	농가수		농가 비중		
	2008	2016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1세 미만					
0.5ha 미만	7	1	0.17	0.04	-15.79
41세 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27	3	0.70	0.06	-26.07
41세 미만					
2.0ha 이상	22	4	0.66	0.09	-22.49
41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107	84	4.17	4.45	0.82
41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588	418	21.30	18.00	-2.08
41세 이상 65세 미만					
2.0ha 이상	586	380	19.70	10.80	-7.24
65세 이상					
0.5ha 미만	150	305	6.21	11.80	8.35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829	953	33.90	38.70	1.67
65세 이상					
2.0ha 이상	327	452	13.20	16.00	2.43
합계	2,643	2,600	100.00	100.00	-

주: 농가수의 경우 가중치를 미적용한 통계치이며 농가 비중은 가중치가 고려된 통계치임.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경영주 연령과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소득 변화 정도가 다르게 발생

2.3. 농가 유형별 소득 변화

□ 경영주 나이가 많고 표준영농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음

- 농가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상소득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65세 이상 소농 그룹을 제외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표준영농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보면 연령이 높은 그룹과 표준영농규모가 작은 그룹일수록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1세 미만의 농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경상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그룹은 41세 이상~65세 미만 그룹 중 표준영농규모가 중간인 그룹으로 연평균 7% 증가함.

〈표 11〉 농가소득 변화

단위: 천 원

	농가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2008	2016	'08/'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08/'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08/'16 연평균 증감률
41세 미만 0.5ha 미만	25,606	45,787	7.5	23,670	44,686	8.3	1,936	1,101	-6.8
41세 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25,885	74,398	14.1	19,196	74,367	18.4	6,689	31.18	-48.9
41세 미만 2.0ha 이상	62,018	116,577	8.2	56,626	115,001	9.3	5,391	1,576	-14.2
41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30,455	38,433	3.0	27,067	36,496	3.8	3,388	1,937	-6.8
41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2.0ha 미만	33,491	52,789	5.9	28,898	49,556	7.0	4,593	3,233	-4.3
41세 이상 65세 미만 2.0ha 이상	44,581	65,433	4.9	39,753	62,294	5.8	4,829	3,139	-5.2
65세 이상 0.5ha 미만	18,622	23,977	3.2	16,020	19,744	2.6	2,602	4,233	6.3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22,178	25,655	1.8	18,274	22,920	2.9	3,904	2,735	-4.4
65세 이상 2.0ha 이상	30,565	37,244	2.5	26,130	33,954	3.3	4,435	3,290	-3.7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임.

2) 40세 이하 그룹의 경우 표본수가 거의 없어 연도별로 편입되는 농가의 특성에 따라 통계치의 변동이 큼.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 농가유형에 따라 농업소득에 차이가 발생함

- 농업소득은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외소득은 표준영농규모가 2ha 미만일 때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남.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 농가의 증가율이 더 큼.
- 이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가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표 12〉 경상소득 구성별 변화

단위: 천 원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2008	2016	연평균 증감률
40세 이하 0.5ha 미만	4,579	985	-17.5	16,367	43,401	13.0	2,724	300	-24.1
40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743	1,441	8.6	15,975	72,872	20.9	2,478	53.65	-38.1
40세 이하 2.0ha 이상	40,804	100,559	11.9	10,545	6,611	-5.7	5,277	7,831	5.1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미만	1,061	1,103	0.5	21,635	29,884	4.1	4,371	5,509	2.9
41세 이상 64세 이하 0.5ha 이상 2.0ha 미만	5,620	7,755	4.1	19,491	34,689	7.5	3,787	7,112	8.2
41세 이상 64세 이하 2.0ha 이상	21,199	33,454	5.9	13,318	19,971	5.2	5,236	8,869	6.8
65세 이상 0.5ha 미만	1,397	1,486	0.8	7,345	8,071	1.2	7,278	10,187	4.3
65세 이상 0.5ha 이상 2.0ha 미만	5,735	5,510	-0.5	6,719	8,561	3.1	5,820	8,850	5.4
65세 이상 2.0ha 이상	14,610	16,209	1.3	5,553	7,372	3.6	5,968	10,373	7.2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임.

2) 40세 이하 그룹의 경우 표본수가 거의 없어 연도별로 편입되는 농가의 특성에 따라 통계치의 변동이 큼.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03 |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변동성 분석

농가소득 불평등도 지속 및 도시가구소득 대비 상대적 불평등도 증가

3.1. 농가소득 불평등도 추이

□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는 아직 높은 수준

- 농가유형별 소득분포의 양극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⁴⁾를 추정함. 그 결과 2008년 0.39에서 2016년 0.41로 증가하여 불평등도가 여전하며, 도시가구소득의 지니계수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지니계수 기여도 추정치에 의하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심화가 지니계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농외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가소득 불평등 발생은 주로 농업소득에서의 불평등 발생 때문임을 알 수 있음.

〈표 13〉 2008~2016년 농가소득 지니계수와 기여도 추정치

구분	2008 (기여도)	2009 (기여도)	2010 (기여도)	2011 (기여도)	2012 (기여도)	2013 (기여도)	2014 (기여도)	2015 (기여도)	2016 (기여도)
농가소득	0.39	0.40	0.42	0.42	0.43	0.41	0.42	0.41	0.41
농업소득	0.65(0.46)	0.67(0.42)	0.71(0.44)	0.70(0.45)	0.71(0.43)	0.70(0.48)	0.73(0.49)	0.75(0.52)	0.76(0.51)
농외소득	0.67(0.37)	0.66(0.38)	0.66(0.38)	0.68(0.39)	0.68(0.41)	0.64(0.36)	0.67(0.34)	0.67(0.33)	0.68(0.34)
이전소득	0.51(0.09)	0.50(0.09)	0.50(0.08)	0.48(0.08)	0.48(0.08)	0.51(0.09)	0.48(0.10)	0.45(0.09)	0.45(0.09)
비경상소득	0.67(0.08)	0.75(0.11)	0.74(0.11)	0.74(0.08)	0.73(0.08)	0.71(0.07)	0.68(0.07)	0.65(0.06)	0.68(0.06)
도시가구소득	0.31	0.31	0.31	0.31	0.31	0.30	0.30	0.30	0.30

주 1)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 따라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함.

2) 지니계수에의 기여도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해 계산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농가경제조사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이 교체된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세후 전체 도시가구소득임.

4)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 $\frac{1}{\mu} \frac{\sum_{i=1}^n \sum_{j=1}^n |y_i - y_j|}{n^2}$, y 는 개별 구성원의 소득, n 은 전체 구성원의 수, μ 는 전체 평균 소득. 지니 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황을 의미함. 지니계수의 값이 0.4가 넘으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각한 상태로 간주됨.

□ 피케티(T. Piketty) 접근을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도 추정

- 앞 절의 지니계수 추정 이외에 최근 소개된 피케티 접근법⁵⁾을 적용하기 위해 농가소득과 자산 규모에 기초한 3가지 집단(상위 10%, 상위 10%~50%, 하위 50% 이하)을 설정함.
 - 피케티 접근은 기존의 추상화된 지수를 이용한 불평등도 결과 대신 전체 소득과 자산에서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과 자산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과 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를 제시하여 현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자산과 소득이 상위 10%의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하위 50%의 자산과 소득은 농가의 평균 소득과 자산보다 낮은 수준임.
 - 한국 전체 경제의 경우,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약 45%, 상위 10%에서 50%의 점유율은 약 45.1%,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약 10%에 달함.⁶⁾
- 2016년 자산 기준 농가 상위 10%의 특징은 전업농가와 축산농가, 50대와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소득 기준 상위 10%의 특징은 전체 표본 대비 1종 겸업농가와 축산농가, 40대~60대의 비중이 높은 것임.
 - 따라서 피케티적 접근에 의하면 농업분야에서 소득과 자산의 계층별 불평등도는 전체 국민경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도 있으나, 농업분야 내에서 고령농가의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피케티적 접근(Piketty's Approach)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상위 10% 총자산/전체자산	0.35	0.35	0.35	0.33	0.34	0.36	0.35	0.35	0.34
자산상위 10%- 50% 총자산/전체자산	0.46	0.45	0.45	0.46	0.46	0.45	0.46	0.46	0.47
자산하위 50% 총자산/전체자산	0.19	0.19	0.20	0.20	0.20	0.19	0.19	0.19	0.19
소득상위 10% 총소득/전체소득	0.30	0.31	0.32	0.32	0.31	0.32	0.34	0.34	0.34
소득상위 10%- 50% 총소득/전체소득	0.47	0.47	0.47	0.47	0.48	0.48	0.46	0.45	0.45
소득하위 50%의 총소득/전체소득	0.23	0.22	0.21	0.20	0.21	0.21	0.20	0.20	0.21

주: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비중이 과다계상 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www.kosis.kr), 농가경제조사자료는 5년 단위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이 교체된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5) 피케티(T. Piketty)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참고.

6) 주성영, 2015,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문제.” 경제발전연구, 21 (1)을 참고함.

농가소득의 변동성 발생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3.2. 농가소득 변동성 추이

□ 농가소득 변동성은 최근 들어 축소 추세,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는 5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패널자료임. 이를 감안하여 가장 최근에 표본이 교체된 2013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 두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계측함.
 - 소득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이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상치(outlier)는 제외하였음.⁷⁾
- 2008~2012년과 2013~2016년의 두 기간 간 농가소득 변이계수를 비교한 결과 농가소득의 변이계수는 0.186에서 0.162로 감소함. 변이계수 감소는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모든 소득원천에서 동시에 나타남.
 - 농업소득의 높은 변동성은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가 클수록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표 15〉 농가 소득원천별·기간별 변이계수

구분	2008~2012년	2013~2016년
농가소득	0.186	0.162
농업소득	0.350	0.285
농외소득	0.263	0.241
이전소득	0.180	0.143
비경상소득	0.439	0.358

3.3. 농가 특성별 소득변동성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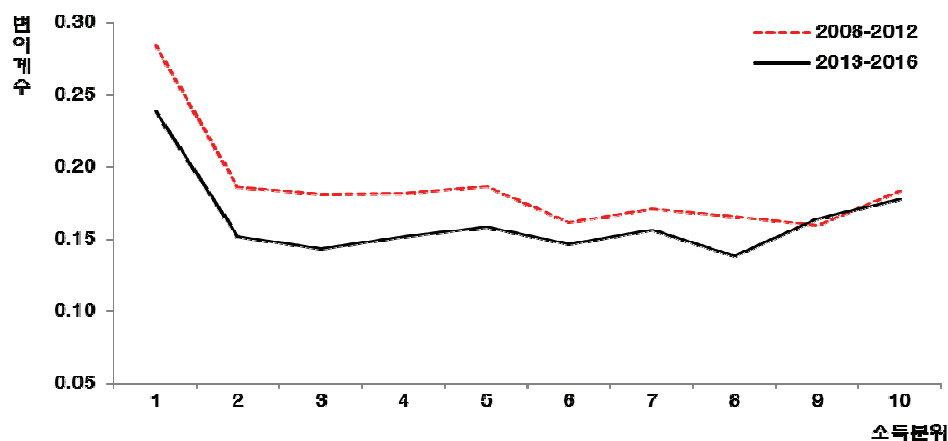
-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소득계층과 영농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이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별로 농가의 기간 평균 소득과 기간 평균 영농규모를 10분위로 나누었음.

7) 변이계수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2배의 범위 밖에 있는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소득 1분위 가구(영세 고령농)의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음

- <그림 7>에서 보듯이 소득 1분위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67.8세, 평균 가구원수는 1.2명, 평균 영농규모는 1.17ha로서 (2008~2012년 기준) 1분위 가구는 영세 고령농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소득 1분위 가구는 비정상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소득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영세 고령농이 소득 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7>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변이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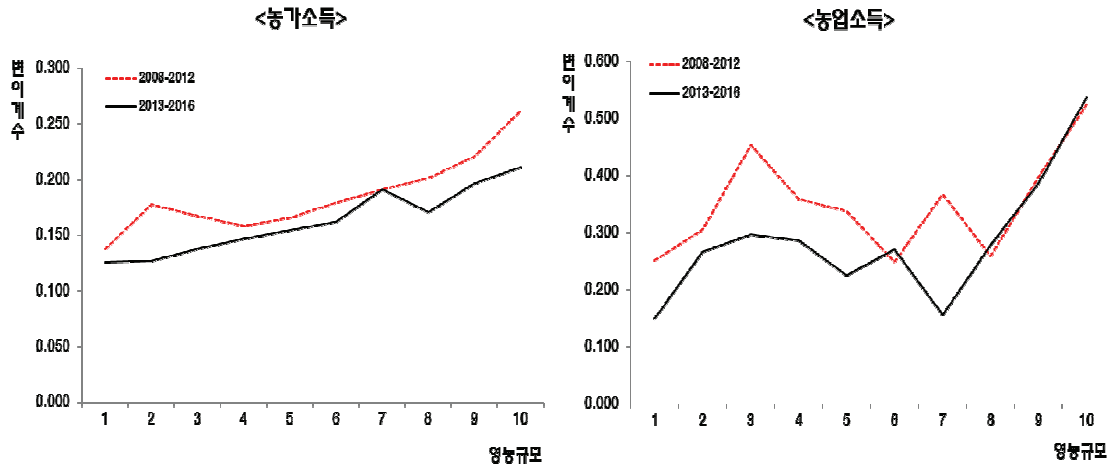


주: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분위수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농가소득의 변동성 증가함

- 각 농가의 표준영농규모를 10분위로 나누어 농가소득의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영농규모가 가장 작은 농가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138(2008~2012년)이지만 영농규모가 가장 큰 농가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262(2008~2012년)로 증가함.
-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영농규모가 소득불안정성과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소득 변이계수의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3분위 이후에서 감소한 후 7~8분위부터 다시 증가함. 다만 2013~2016년 기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영농규모가 1~7분위에 속하는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성이 더 완화되었음.
- 이는 소규모 농가의 농외소득 경제활동이나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영농규모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이계수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경영주 연령보다는 경영규모가 소득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서 주된 소득원이나 투자 성향, 소비성향 등이 달라져 농가소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경영주 출생연도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농가소득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남.

〈표 16〉 연령별·소득원천별 변이계수

연령(2008년 기준)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40세 미만	0.157	0.394	0.274	0.290	0.637
40~64세	0.098	0.153	0.038	0.257	0.148
65세 이상	0.034	0.115	0.133	0.172	0.200

- 그러나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경영주의 연령이 증가해도 소득안정성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소득 변동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영농규모와 정비례하고 있음.

〈표 17〉 연령별·영농규모별 농가소득 변이계수

연령	2008~2012			2013~2016		
	0.5ha 미만	0.5ha 이상~2.0ha 미만	2.0ha 이상	0.5ha 미만	0.5ha 이상~2.0ha 미만	2.0ha 이상
40세 미만	0.135	0.217	0.280	0.062	0.165	0.180
40~64세	0.163	0.187	0.239	0.165	0.165	0.195
65세 이상	0.148	0.149	0.186	0.121	0.127	0.177

04 | 시사점

농업소득 감소와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계층별, 영농규모별 정책 필요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2016년 기간 동안 농업소득은 연평균 0.5% 증가한 반면 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임.
- 그 결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인 농업소득률도 2008년 37.4%에서 2016년 32.3%로 감소함.
- 농업소득의 정체로 농가의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증가는 다시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농업소득 증대 대책 도입이 요구됨.

□ 표준영농규모를 적용한 농가 유형화 결과, 전체 144개 농가 유형 중 경영주 연령 65~70세이면서 동시에 표준영농규모 0.5~1ha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많음.

- 2016년 기준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66.5%를 차지함. 특히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경영주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침.
-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표준영농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가장 큰 반면, 2ha 이상인 농가의 증가율은 -2.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때, 경영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표준영농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농가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들 고령 농가의 영농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령 영세농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보여줌.
- 이들 고령 영세농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8%, 1.2%, 4.3%임. 이들 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정책 이외의 다른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지니계수로 측정한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심화가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농업소득 기여도가 51%, 농외소득 기여도가 34%로 나타남. 특히 근래 들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과거보다 더욱 커지면서 농가소득 불평등도에서의 상대적 기여도도 크게 증가함.
-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함.
- 특히 영농규모와 농업소득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영농규모 확장이나 유지가 어려운 고령영세농가에의 농업소득 증가정책 적용은 농가소득 불평등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변이계수로 살펴본 농가소득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다만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 1분위에 속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고령농가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임. 특히 소득 1분위 농가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 비경상소득 의존도가 높음.
- 영농규모로 구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이들 농가는 특정 작물생산에 전업화한 경우로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임. 따라서 상대적 고소득과 높은 소득 변동성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소득 불안정성 발생원인은 농가 특성에 따라 다르기에 소득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계층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KREI 농정포커스 v

2017년

- | | |
|-------|---|
| 제157호 |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 제156호 |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 제155호 |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 제154호 |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 제153호 |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익식) |
| 제151호 |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
| 제150호 |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 제149호 |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 제148호 |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 제147호 |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 제146호 |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 제145호 |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
| 제144호 |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
| 제143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 제142호 |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
| 제141호 |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운, 김형진, 한봉희) |

2016년

- | | |
|-------|--|
| 제140호 |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 제139호 |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 제138호 |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 제137호 |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 제136호 |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 제135호 |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 제134호 |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 제133호 |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 제132호 |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 제131호 |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 제130호 | 수익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 제129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 제128호 |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 제127호 |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 제126호 |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 제125호 |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 제124호 |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 제123호 |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석주인, 심재현) |

